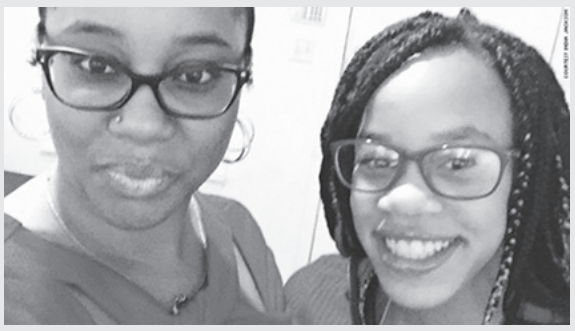
네티즌 도움으로 NASA 인턴 된 싱글맘



어린 딸을 키우면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싱글맘이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다.

14일 CNN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태양물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디아 잭슨(32·왼쪽)은 12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어려운 살림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꾸던 기회는 기적처럼 찾아왔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NASA 존슨 우주비행센터에서 10주 간 일하는 인턴십에 선발된 것이다.

그러나 생활비가 문제였다. 잭슨은 "유급 인턴이기 때문에 일정 급료를 받을 수 있지만 딸과 함께 텍사스 휴스턴으로 갈 이사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면서 "평생의 꿈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 고 말했다.

옆에서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촌이 아이디어를 냈다.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GoFundMe)에 사연을 공개하고 네티즌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한 것이다. 잭슨은 총 8,000달러를 목표로 계정을 개설했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8,510달러가 모였다.

잭슨은 "예상치 못하게 순식 간에 목표액이 모여 당황할 정도였다." 며 "전세계 네티즌의 도움을 받았다." 며 놀라워했다. 목표액을 채운 잭슨은 하루 만에 모금을 중단하고 꿈에 그리던 NASA 행을 준비하게 됐다.

잭슨은 "202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애틀랜타 지역 대학의 연구교수로 취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라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NASA에서 일하고 싶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가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 이 꿈을 이루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렵게 해왔듯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쓰레기장 같은 뉴욕 지하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뉴욕 지하철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2일 CBS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를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뉴욕 브롱크스의 앨러튼 애비뉴 정류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티모시 브라운(33)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한 열차 내부 상태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건설 현장으로 출근 중이던 브라운은 신문과 비닐봉지, 버려진 포장지 등이 너저분하게 깔린 지하철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

그는 "역겹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난다. 노숙자가 진을 치고 쓰레기로 가득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왜 요금을 내야 하느냐?" 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뉴욕 지하철은 노숙자 쉼터로 변해버렸고 승객들은 쓰레기를 피해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그런데도 MTA는 사람들이 요금인상에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한다." 고 비판했다.

티모시가 공유한 영상을 접한 뉴욕 시민들은 일제히 MTA를 비난하며 제대로 된 지하철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자는 "명백한 규칙 위반" 이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접한 뒤 뉴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욕 시민 중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 면서 강력한 대처를 약속했다.

하지만 티모시는 "MTA 직원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면서 "그 직원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며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MTA 근로자와 뉴욕교통노동조합은 "MTA 측에 지하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 면서 "덮어놓고 요금 인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깨끗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라." 고 요구했다.

나무에 꽁꽁 묶인 가정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던 한 필리핀 가정부가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나무에 묶였다. '가구를 땡볕에 방치했다' 는 이유 때문이었다.

가정부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26)의 집주인은 지난 9일 바루엘로가 고가의 가구 한 점을 집 밖에 두었다고 똑같이 땡볕에 서 있어 보라며 바루엘로를 나무에 묶어둔 채 자리를 떴다. 이 사실은 함께 일하던 필리핀 동료가 촬영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필리핀 대사관은 같은 날 오후 9시 무렵 바루엘로를 마닐라로 귀국시켰다. 바루엘로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주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줬다." 고 말했다.

필리핀 외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노동자는 약 230만 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대부분 보모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중동에서 이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던 레바논 남성이 필리핀 가정부 조안나 데마펠리스(29)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여 동안 냉동 보관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한편 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한 바루엘로는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나무에 묶인 그녀의 모습을 촬영해 폭로한 필리핀 노동자들은 아직 사우디에 남아 있다면서 "동료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그들 역시 구조되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드러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